

Daily Closing Brief

Equity Market Analyst 강대석
02 3770 3631 / daeseok.kang@yuantakorea.com

■ 짧은 환호

- KOSPI는 비둘기 성향의 FOMC 결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며 +1.3% 오른 2,544.2pt에 마감. KOSDAQ도 +1.4% 강세를 보이며 840.6pt에 마감
- 일본(-0.7%), 중국(상해 -0.1%) 증시는 소폭 부진한 반면, 대만(+1.1%), 홍콩(+1.1%) 증시는 상승(15:30 기준)
- 국내증시는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적 결과로 끝난 미국 FOMC를 반영. 미국 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에 따라 국고채 금리도 동반 급락. 원/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을 하회한 1,295.45원/달러에 마감
- 증시는 대형주 중심 강세. 반도체, 2차전지, 인터넷/게임과 같은 업종뿐 아니라 금융, 화학, 기계와 같은 업종들도 강세.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덕분인 것으로 판단. 시총 상위에서는 SK하이닉스(+4.2%)가 LG엔솔(+3.1%)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를 탈환
- 한편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맞아 장 막판 동시호가에는 다소 변동성 발생. 그래도 외국인 거래소 기준 현선물 약 1조원 순매수 유입. 기관 투자자는 KOSPI 현물을 약 6900억원 순매수. 개인투자자만 약 1.3조원 순매도
- 아시아 증시 장중 미국채 10년물이 4%를 하회하는 등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가속화된 데 반해 증시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된 편. KOSPI 기준 하락종목 수도 418개로 상승종목 수(463개)와 거의 비슷. 비용부담 완화가 곧 실적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. '비용부담' 완화가 충족되기 시작하며 시장 관심은 다시 '증익'으로 이동할 전망. 12월 들어 내년 영업이익 기대가 상향되고 있는 헬스케어, 건설, 상사/자본재 등 업종에 관심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(작성자: 강대석)

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